산림율
65%

녹지율
86.8%

1인당 **물 사용량**

176.6L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떠나는
재미있는 도시여행

녹색도시 과천알기

1인당 **쓰레기 배출량**

1.5KG

재활용률
42%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21
미세먼지 40

전문가 칼럼

현재 과천에
필요한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
41만6천T

단위: CO2eq

돌아가기

2015년 기준

산림면적

과천시 면적
3,587ha

산림면적
2,330ha

산림율
65%

출처: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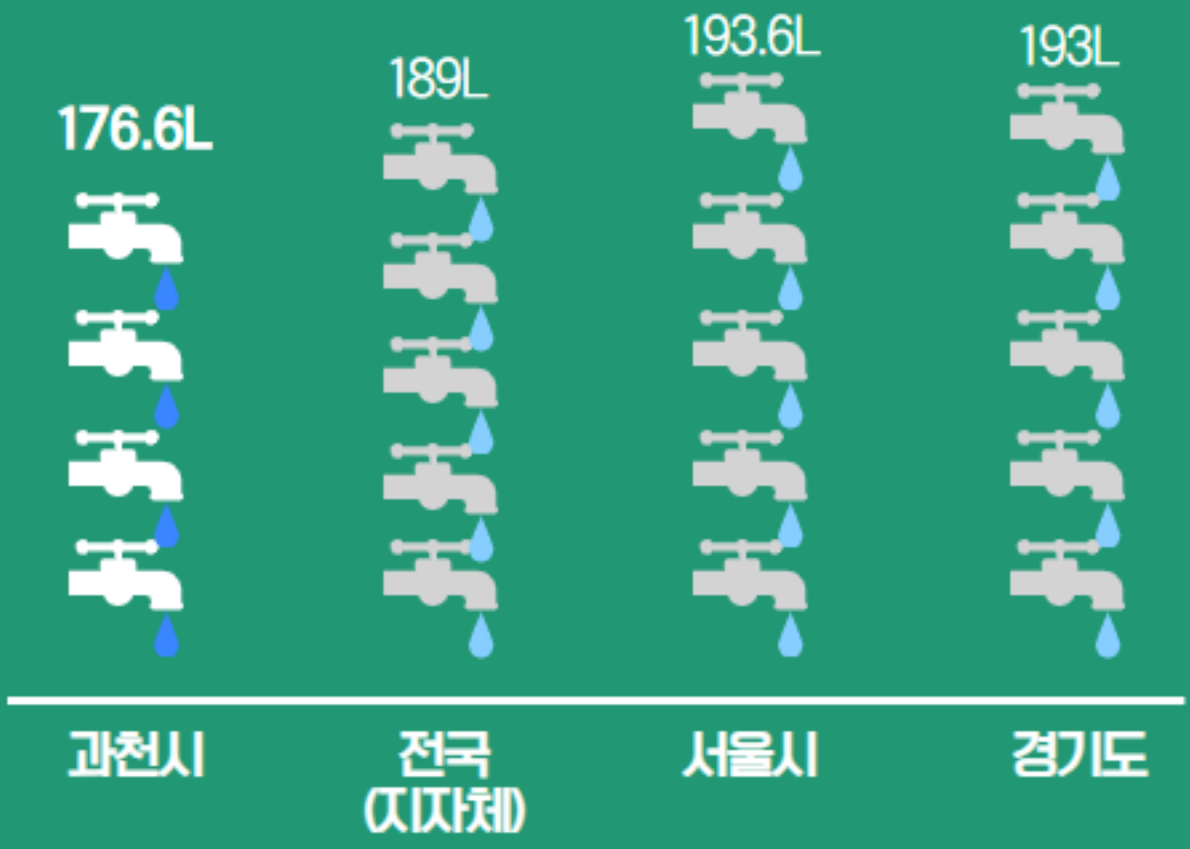
녹지비율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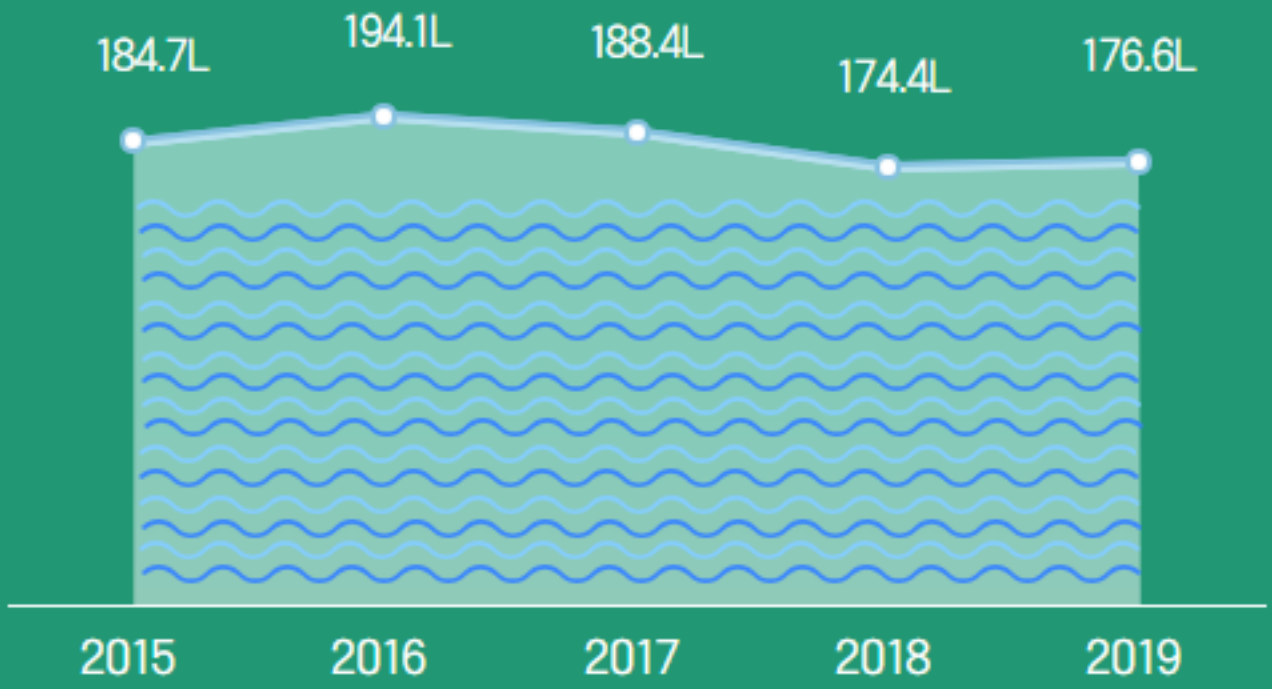
돌아가기

2019년 기준 1인 1일 가정용수 사용량

1인당 물 사용량



1인당 물 사용량 추이



출처: 환경부, 「상수도 통계」

2019년 기준1인 1일 배출량

돌아가기

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단독주택: 종량제봉투 또는 재사용봉투 담아 해가 진 후 집 앞에 두기

공동주택: 종량제봉투 또는 재사용봉투 일반쓰레기통에 넣기

일반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넣기

※ 단지별로 설치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단독주택: 지정된 수거 요일에 품복별로 집앞에 두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지정 요일에 쓰레기 집하장에 품목별 두기

대형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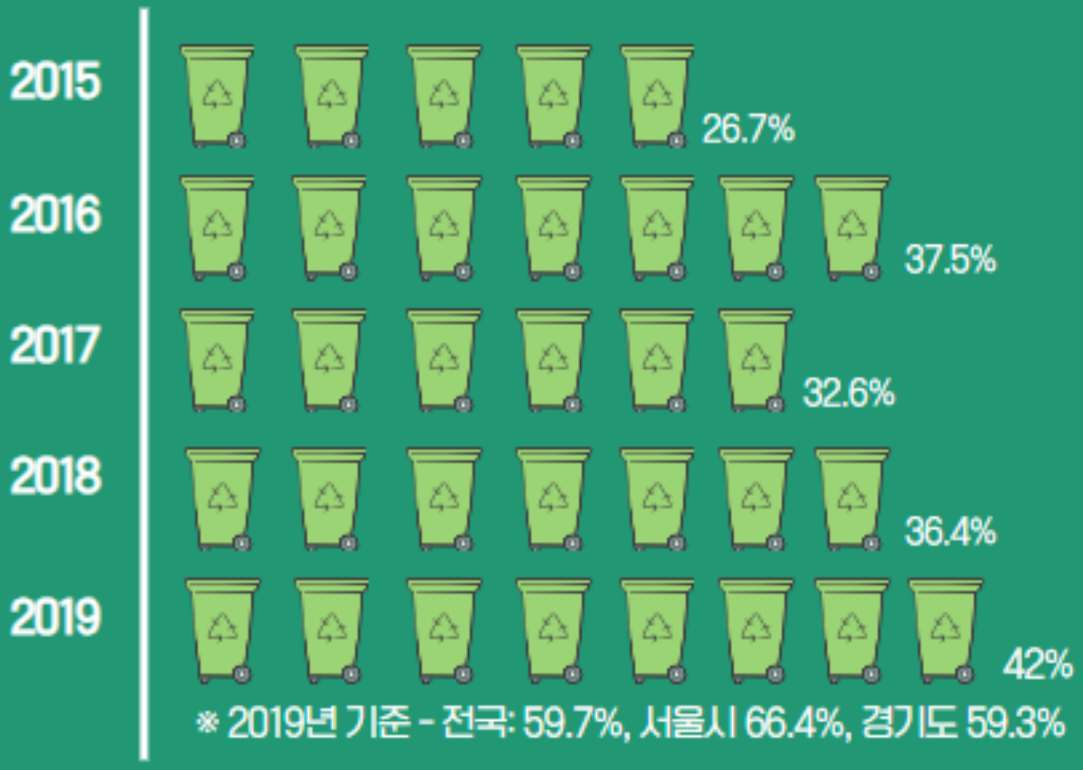
대형폐기물 신고확인증을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내 집 앞에 두기

※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가능
문의: 1599-0903

출처: 과천시, 「2021 과천시 생활 안내」

돌아가기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과천시 제13회 자원순환의 날 환경부 장관 표창

- ☑ 재생원료로 만든 종량제 봉투
- ☑ 라벨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의무화
- ☑ 1회용 봉투 거부하고! 에코백 실천하고!

재활용의 활성화! 올바른 분리배출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알아보기

2020년 기준 연평균 농도

미세먼지 오염도

돌아가기

단위: μg/m³

초미세먼지(PM2.5)

좋음 ~15	좋음 ~35	나쁨 ~75	76~ 매우나쁨

미세먼지(PM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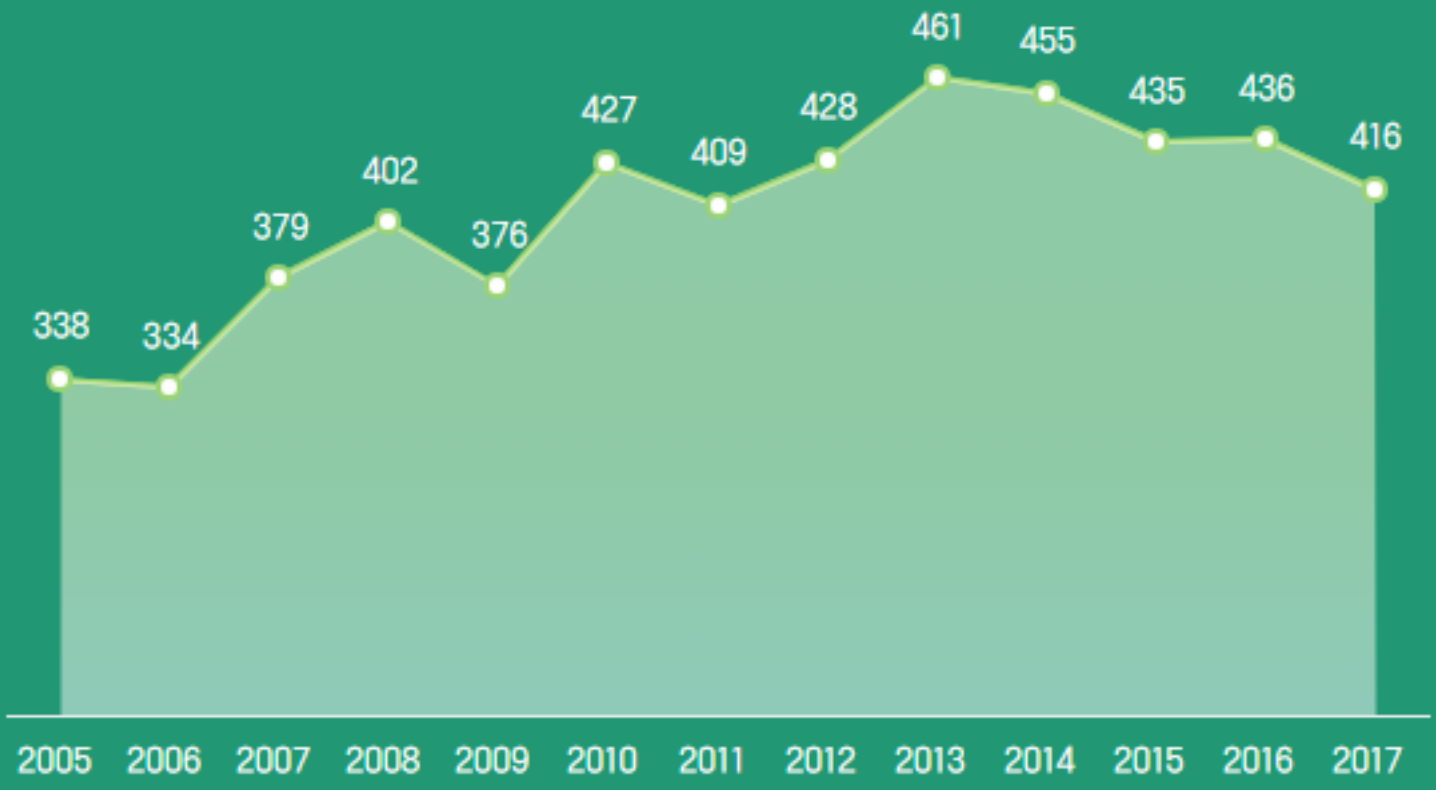
좋음 ~30	좋음 ~80	나쁨 ~150	151~ 매우나쁨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과천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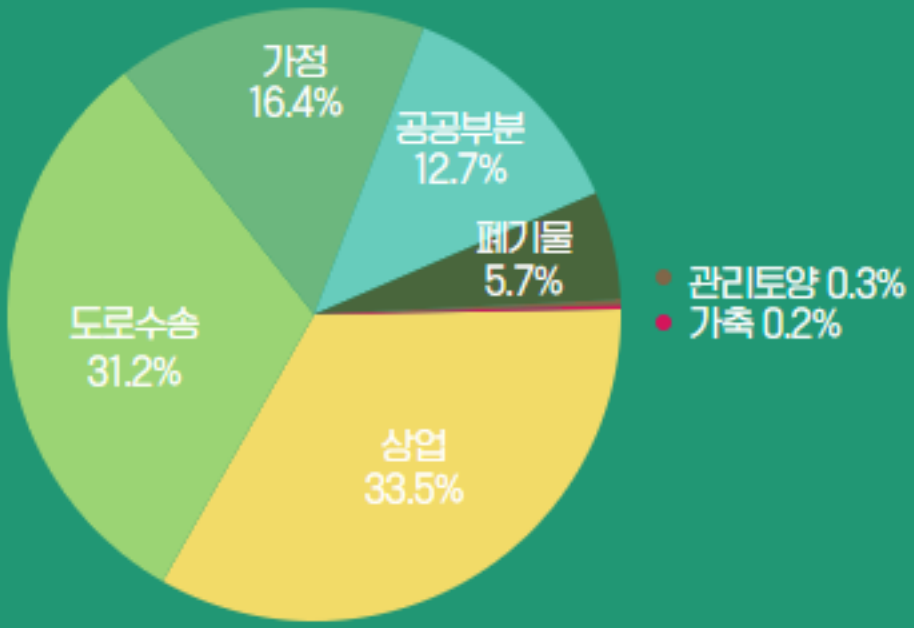
돌아가기

단위: 천톤CO2eq



2017년 기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출처: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포럼 자료집」

돌아가기

과천시
2021년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환경부장관 수상

☑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앞장선 과천시

-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지정
- 과천시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탄소포인트제 시초)
- 시민 참여형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과천시 2050 탄소중립, 시민과 함께해요

탄소포인트제 알아보러가기

ESG 경영의 꽃!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
RE100 Renewable Energy 100%

☑ 기업 사용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대체

- 기업 등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가능

2021년부터 "한국형 RE 100(K-RE100)" 도입

한국형 RE100 알아보러가기

전문가 칼럼 제3호

고령화 시대, 과천이 나아가야 할 노인주거정책의 방향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홍이경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독거 세대의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의 노인인구는 2021년 7월 기준 9,790명으로 고령화율 14.1%에 해당되면서 한국전체 고령화율(2020년 15.7%)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노인 중 19%는 독거노인으로 이들 중 15.9%는 수급자에 해당하면서 이들 노인가구에 대한 주거정책의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자들은 인생을 마칠때까지 익숙한 장소인 살던 곳-AIP의 공간적 개념은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이미 친숙한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의미까지 확장 될 수 있다-에 남아서 생활하는 Aging in Place(이하 AIP)를 추구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건강유지시 현재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83.8%로 조사되어 노인들에게 있어 AIP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AIP가 노인의 선택권 보장의 측면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집에 머무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돌봄에 드는 사회적 비용감소의 측면에서도 AIP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에게 적절한 주택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실시·지원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으로 정비비 보조, 세제 특례 조치,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융자 지원 등과 주거지원협의회 연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관련 리폼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립 가능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LSA(Life Support Advisor)를 통한 일상생활지도, 안부확인, 긴급 시 연락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하우징(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변 지역주민 대상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복지서비스 등의 공급거점으로서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를 모색한 스마트 웰니스 주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은퇴주거단지와 고령인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인 욕구들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측면에서 빌리지모델, 코하우징(co-housing) 모델, 생활보조모델(assisted living facility), CCRC 모델, NORC-SSP모델 등 여러 형태의 대안적 모델로 발전되어 왔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해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Program을 통해 주거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비 보조, 30~50% 저렴한 수준의 임차료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시도되어 왔다. 공공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8만호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노인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할 예정에 있다. 특히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지자체와 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중에 있으며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케어안심주택이나, 서울시 고령자 대상 지원주택 및 효몸어르신 맞춤형 공동체 주택 등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 주택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과 지원정책들이 주로 저소득 노인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인가구 단독으로 공급되기 보다는 장애인이나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공급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 노인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 기회가 부족하여 전체 고령자의 약 3%만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의 유형들은 최근 5년이내 이루어진 사업들로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초고령사회 대비한 고령자의 AIP를 위해 노인주거복지정책은 주택의 공급측면, 주거서비스지원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주택공급측면에서 가장 수요자가 많으나 노인주거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산층 노인 대상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중산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형 주택의 다양한 모델 개발을 통해 서울에 인접해 있는 친환경 과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제지원, 대출지원, 규제완화 및 사회 인프라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활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업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노인을 위한 서비스지원 방안으로서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으로 부동산 보유 외에 특별한 은퇴자산 준비가 부족하며, 현금흐름이 부족한 한국노인세대를 위해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현금흐름 창출 지원이 필요하다. 실례로 서울시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사업은 주택연금가입주택 활용한 공적임대주택 사업으로 2020년 시범사업결과 주택연금 이용 노인의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AIP를 위한 지역 주도형 주거지원방안으로 기존 고령자 지원정책과 과천시 지역사회 사업을 함께 고려하여 주택개조지원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지역사회연계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하다. 성공적인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단지특성과 입주민 욕구에 대응한 주거생활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의 '주거복지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동체 코디네이터', 경기도시공사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등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령화 시대, 과천시가 가진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과천의 움직임이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고령사회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